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2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1~5월 교역액 19.2% 증가

■ 해관총서에 따르면 1~5월 중국의 교역액은 전년 동기대비 19.2% 증가한 2조 9,751억 달러(한화 약 670조 원)를 달성

- (수출입) 수출은 15.5% 증가한 1조 7,134억 달러(약 386조 원), 수입은 24.5% 증가한 1조 2,617억 달러(약 284조 원)로 집계
- (수출) 집적회로(90.0%), 자동차(50.4%), 컴퓨터 및 주변기기(38.7%), 휴대폰(6.0%) 모두 증가

순위	품목명	수출(억 달러)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억 달러)	증감률(%)
1	집적회로	1,391	90.0	6	플라스틱 제품	465	8.7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1,109	38.7	7	휴대폰	449	6.0
3	자동차	736	50.4	8	농산품	432	5.0
4	방직실 및 직물	595	1.7	9	가전제품	428	4.3
5	의류 및 부자재	572	△1.6	10	자동차 부품	415	5.2

*자료 : 해관총서

- (수입) 컴퓨터 및 주변기기(65.1%), 집적회로(52.1%), 동광석 및 정광(36.7%), 미단조 동 및 동재(26.1%)는 증가, 플라스틱(일차제품, △15.7%), 천연가스(△10.1%)는 감소

순위	품목명	수입(억 달러)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입(억 달러)	증감률(%)
1	집적회로	2,384	52.1	6	동광석 및 정광	439	36.7
2	원유	1,281	3.5	7	미단조 동 및 동재	265	26.1
3	농산품	888	11.1	8	천연가스	200	△10.1
4	컴퓨터 및 주변기기	693	65.1	9	의약품 및 약품	198	1.0
5	철광석 및 정광	522	9.4	10	플라스틱(일차제품)	146	△15.7

*자료 : 해관총서

- (국가·지역별 수출입) 對아프리카(22.1%), 對아세안(20.6%), 對한국(43.8%), 對일본(17.2%)은 증가, 對미국(△3.5%)은 감소

구분	수출입		수출		수입	
	금액(억 달러)	증감률(%)	금액(억 달러)	증감률(%)	금액(억 달러)	증감률(%)
일대일로	15,203	17.4	8,681	15.8	6,522	19.4
아세안	5,065	20.6	3,179	20.3	1,886	21.0
EU	3,642	13.9	2,540	16.4	1,102	8.6
미국	2,312	△3.5	1,725	△2.7	588	△5.5
한국	1,861	43.8	753	28.5	1,109	56.5
일본	1,467	17.2	689	7.1	778	27.8
라틴아메리카	2,473	17.6	1,276	9.5	1,198	27.6
아프리카	1,639	22.1	1,049	25.8	590	16.1
전체 교역액	29,751	19.2	17,134	15.5	12,617	24.5

*자료 : 해관총서

자료원 : 해관총서

2 3D 프린팅 산업 빠른 발전 단계 진입

- 인공지능(AI), 신소재, 스마트 제조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3D 프린팅 산업은 새로운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으며, 기술 검증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산업화 및 규모화 단계에 진입
 - 해관총서에 따르면 1~4월 3D 프린터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100.3% 증가한 246만 대, 수출액은 110.4% 증가한 61억 위안(한화 약 1조 3,710억 원)을 달성. 3D 프린팅 장비 생산량도 50.9% 증가하여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높은 성장세를 기록
 - 최근 3D 비전 센서 분야 선도기업인 오르백(ORBEC, 奥比中光)은 선전시 소재 크리얼리티(CREALITY, 创想三维)와 공동으로 '3D 스캐너 디지털 공동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차세대 '3D 프린팅 AI 비전 스마트 플랫폼'을 출시
 - 크리얼리티는 5월 29일 홍콩증권거래소에 상장하여 중국 소비자용 3D 프린팅 분야 최초의 홍콩 상장기업이 되었으며 2025년 매출은 36.7% 증가한 31억 위안(약 6,967억 원)을 기록
 - 산업용 시장도 활발한 성장세로 3D 프린팅 맞춤형 제품 및 장비에 대한 주문 증가에 힘입어 시안 BLT(铂力特)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43.6% 증가한 3억 위안(약 674억 원)을 달성
 - 산업용 3D 프린팅 장비업체인 후난 Farsoon(华曙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3D 프린팅 기술은 주로 자동차 연구개발용 시제품 제작과 소량 생산에 응용되며, 최근 다수의 국내외 자동차 기업과 중요한 협력 관계를 구축 중이라고 밝힘
 - 초상증권에 따르면 현재 3D 프린팅의 주요 응용 분야는 산업기계(20%), 항공우주(17%), 자동차(14%), 전자제품(13%) 순으로 나타남

- 특히 항공우주 분야는 3D 프린팅이 기존의 부품 경량화에서 엔진 연소실, 터빈 블레이드 등 핵심 부품 제조로 확대, 전자제품 분야는 폴더블 스마트폰 힌지 커버에 티타늄 합금 3D 프린팅 기술이 응용되며, OPPO는 금속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폴더블 스마트폰 힌지 부품을 생산
- 오르백 관계자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3D 스캐닝, 3D 모델링, 스마트 프린팅 기술 융합으로 3D 프린팅은 향후 소비자용 창작, 산업용 제조, 교육·훈련, 의료재활, 맞춤형 주문생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이 확대될 것으로 분석
- 선두(深度)과학기술연구원 장샤오룽(张孝荣) 원장에 따르면 장비 가격 하락과 출력 효율성 향상, 산업 생태계의 성숙에 힘입어 3D 프린팅은 미래의 핵심 생산방식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

자료원 : 증권일보

3 중국-유라시아 박람회(6/25~29) 신장 우루무치에서 개최

- 상무부에 따르면 제9회 중국-유라시아 박람회(6/25~29일)가 신장(新疆) 우루무치에서 개최될 예정
- 박람회의 전시면적은 14만㎡로 투자 협력, 신질적 생산력, 특색 우위산업, 친환경 발전, 문화·관광 융합, 실�크로드 협력 등 6대 전시구역을 운영하며, 27개 국가·지역·국제기구, 중국 내 31개 성·시와 신장생산건설병단이 참가
- 올해 박람회의 3대 특징은 △(개방 확대) 아랍에미리트(UAE)·한국·러시아·태국이 최초로 국가관을 운영, △(혁신 강화) 인공지능(AI)·디지털 경제·저공 경제·바이오 제조 등 첨단기술 혁신 성과를 집중 전시, △(협력 내실화) 무역 촉진·투자 협력·소비 확대·기술혁신 협력 등 4대 분야의 신제품 발표회, 크로스보더 경제무역 교류회, 투자유치 설명회 등 80여 건의 행사를 개최
- 신장위구르자치구 상무청 싱타오(邢涛) 청장에 따르면 올해 전시회는 신질적 생산력과 첨단산업을 대표하는 선도기업들이 대거 참가할 예정으로 글로벌 500대 기업, 중국 500대 기업, 중앙기업, 지방 국유기업, 상장기업, 전정특신(专精特新, 전문화·정밀화·특색화·혁신화) 기업, 국가급 첨단기술 기업 등 300여 개 기업이 참가
- 신장은 중국 서부 개방의 교두보로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경제무역 협력을 도모. 2025년 중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교역액은 최초로 1,000억 달러를 돌파,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최대 무역대상국이자 주요 투자유치국으로 자리매김
- 상무부 유라시아사(司) 장둥(张栋) 부사장은 앞으로도 신장이 가진 독특한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무역 협력을 확대하고, 중국과 중앙아시아 국가 간 협력 과정에서 더욱 큰 작용을 발휘하도록 지원할 계획을 밝힘

자료원 : 경제참고보

4 中, 크래프트 맥주 시장 빠른 성장세

- 중국 시장조사기관 중연푸화(中研普华)에 따르면 중국의 크래프트 맥주 시장규모는 2025년 1,300억 위안(한화 약 29조 원)에서 2026년 1,600억 위안(약 36조 원)으로 성장할 전망
 - *크래프트 맥주 : 대량 생산 산업 맥주와 소규모 양조장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프리미엄 맥주, 수제맥주와 유사한 의미로 쓰임
 - 현재 Z세대의 소비가 크래프트 맥주 소비의 65%를 차지하며 핵심 수요층으로 부상했고 즉시배송 서비스 또한 크래프트 맥주 소비를 견인
 - 올해 메이뚨(美团), 징둥다오자(京东到家) 등 플랫폼에서 크래프트 맥주 검색량은 전년 대비 98% 증가하여 산업 맥주에 이은 2대 품목으로 부상
 - 소비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는 크래프트 맥주의 높은 상업적 가치를 입증. 주류 대기업, 타 업종 브랜드들은 공급망, 유통채널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해당 시장을 선점
 - 44년의 역사를 보유한 허난성 진성(金星)맥주회사는 2025년 1~3분기 전체 매출 가운데 크래프트 맥주의 매출 비중이 78%를 차지했으며, 올해 1월에는 홍콩증권거래소 상장을 신청
 - 화룬(华润)맥주회사는 화룬부동산(华润置地)과 공동으로 'BREW TOWN 맥주타운'을 조성해 노후 공장을 관광, 소비, 예술 체험이 결합된 크래프트 맥주 문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
 - 차음료 브랜드인 미쉐빙청(蜜雪冰城)은 2025년 3억 위안(약 676억 원)을 투자하여 크래프트 맥주 프랜차이즈 기업인 푸루자(福鹿家)의 지분 53%를 인수하고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 본격 진출
- 최근 중국의 맥주 시장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는 추세로 향후 독특한 풍미와 차별화된 소비경험을 제공하는 크래프트 맥주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전망
 - 화징(华经)산업연구원은 올해 맥주 시장규모는 8,111억 위안(약 183조 원)으로 추산, 국가 통계국에 따르면 2025년 규모(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기업의 맥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감소한 3,536만 킬로리터로 2013년 최고치인 5,062만 킬로리터의 70%에 불과

〈중국 징둥(JD) 플랫폼 인기 크래프트 맥주〉



자료원 : 증권일보